

‘민주 원팀경선’ 바람 광주·전남에도 부나

당 높은 지지율에 후보 과열 양상...도입 필요성 대두 광주 동남을 등삼...최영호·이병훈 시장후보도 “환영”

부산, 울산, 제주 등지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팀(One Team)’ 경선 운동이 광주·전남에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높은 당 지지율에 힘입어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같은 과열 양상을 보여 ‘원팀’ 경선 운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런 가운데 21일 민주당 광주 동구지역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원팀 합이’를 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원팀 경선 운

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광주 동남을지역 각급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이날 네거티브 없는 공정선거를 위한 원팀 운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이병훈 광주시장 예비후보(전 동남을 지역위원장)를 비롯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예비후보 등이 모두 동참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 시점에 당내에서 후보 간의 흠집내기는 민의를 외면한 제 발등 찍기”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발로 뛰는

선거 ▲정책 선거 ▲돈 안드는 선거 ▲선거법 지키는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등 5대 원칙에 합의하고, 경선 통과자에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선거를 돕는 원팀이 되기로 했다.

최영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최근 모 방송사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원팀 경선의 원칙과 정신을 적극 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보자간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토론에도 적극 참여할 때 원팀 경선의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원팀 경선에 동의하고 함께 할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토론회에는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후보군들이 7명이 나서는 등 조기에 과열되면

서 정책 또는 비전이 아니라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문제 등으로 후보 간 공방이 펼쳐지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원팀 경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선 광주시장 선거전이 선의의 경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광주에서도 원팀 경선 운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팀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선 주자들이 한 팀의 일원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정책중심 공정경선을 치른 뒤 본선 결과에도 승복하며 상호협력력을 이어 나가는 정치제 제안이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획으로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최권일기자 cki@



평화당 “지방선거 화이팅” 민주당화당 조배숙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화당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공천 갈등’ 증폭

당 중진 홍준표 힘차 출마론에 洪 “당권 뺏으려는 계책” 발끈

자유한국당 내 ‘비홍(非洪·비홍준표) 성향의 중진의원 일부가 ‘지방선거 구인난’을 문제 삼으며 홍준표 대표의 힘차 출마론을 제기하자 홍 대표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부 비홍 중진의원들이 홍 대표의 인재영입 성과가 미흡하다며 홍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대표는 발끈했다. 홍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는 이 당에서 23년 동안 힘차에서만 정치를 해왔고 당을 위해 저격수도 사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편한 지역에서 당을 위한 별다른 노

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나를 출마시켜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홍계 이주열·심재철·정갑윤·나경원·유기춘·정우택 등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이날 원내전략 중진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자리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 대표와 중진 사이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정작 홍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냈던 중진 의원 전원도 불참해 갈등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주열 한은총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곧바로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당일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이진성 한법재판소장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불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흠결보다는 정치적 독립성 등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현직 한은 총재에서 연임 지명

된 데다 그간 대과 없이 한은을 끌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의 의원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 4년간 한은 총재로 재임한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총재로서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후보자는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년 전 한국은행 부총재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한은 총재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재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6·13 선거 현장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새천년 열겠다” 출마 선언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도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남도 새천년을 열겠다”며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인재 육성, 농수축산생명 산업 벨트 조성, 식문화 관광 메카 개발, 세계적 체험·휴양형 관광 메카 조성, 신에너지·바이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대표 산업 육성 등 9가지 정책과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희망

을 주는 희망 도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인재 육성, 농수축산생명 산업 벨트 조성, 식문화 관광 메카 개발, 세계적 체험·휴양형 관광 메카 조성, 신에너지·바이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대표 산업 육성 등 9가지 정책을 내놨다.



신정훈 예비후보 등록...본격 경선 활동 돌입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 활동에 돌입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전남도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촛불혁명 완성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남도정의 혁신, 호남정치의 개혁,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역발전을 이루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을 위해 헌신하겠다. 도민과 당원 동지들을 믿고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이성수, 농민수당 지급·농산물 최저가보장제 등 제시

이성수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1일 “농업대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업은 전남의 뿌리산업이자 부모와 같은 산업이다. 농업·농촌·농민이 살아야 전남도민이 편안하고 전남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정책 공약으로 농민수당 연간 240만원 지급,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현, 통일농업특구 조성, 친환경 가축농지, 농지대개혁 추진, 여성농민과 신사업을 통한 여성농민 특별 지원,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가족전염병 등 재해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장석용 “지역민과 협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확대”

장석용(63·전 전교조 위원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열악한 전남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며 “교육감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예를 들자면 폐교를 예술공방으로 탈바꿈시켜 학생들이 지역사회 전문가(마을 주민) 지도 아래 재 활용 아트, 목공예, 생활용품 만들기 등



방과후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고려해 만하다”면서 “교육청 노력만으로는 전남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민주노총 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 370여곳이 추진한 민주교육감 경선을 통해 선출된 진보진영 단일후보다. /박정욱·김형호기자 jwpark@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카트리지가/사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통령로터움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지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지점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